

LG 경영진, 엔비디아 본사 향한다 AI·로봇 등 사업 협력구도 구체화

구광모 회장, 이달 초 젠슨황 회동 CTO·연구인력 등 워킹그룹 구성 기술교류 넘어 실제 사업적용 관측

LG그룹 주요 계열사의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연구진이 미국 엔비디아 본사로 향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방한해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만난 지 한 달 만이다. 영업 조직 대신 연구개발 인력이 총출동하면서, 양사 협력이 기술 교류를 넘어 엔비디아 기술의 실제 적용 분야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김병훈 LG전자 CTO(부사장)와 이현욱 HS연구센터장(부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정수현 LG사이언스파크 대표(부사장), 민준 LG이노텍 CTO(상무) 등 경영진과 LG전자·LG이노텍·LG CNS·LG AI연구원 실무진을 포함한 30여명 규모 워킹그룹은 이날(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한다. 양측은 기술 세션과 과제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방문단이 영업·사업 조직이 아닌 기술 수장과 연구 인력



구광모 LG그룹 회장(왼쪽)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중심으로 꾸려졌다는 점이다. 사업 책임자가 아닌 CTO와 연구진이 대거 참여한 만큼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기술 방향을 논의하려는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임원 간 상견례에 머물렀던 이전 단계에서 실무 연구진까지 직접 움직이면서 협력이 기술 검토를 넘어 실제 사업 적용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방문은 엔비디아 기술을 어디에 적용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넘어, LG 계열사들이 각자 어떤 사업을 맡을지 가능

자가 냉각과 로봇, LG이노텍이 광학 센서 등 부품, LG CNS가 AI 팩토리를 각각 맡는 형태로 협력 구도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로봇 분야도 핵심 협력 대상으로 꼽힌다. LG전자는 올해 1월 CES 2026에서 엔비디아 로봇 칩 ‘젯슨 토르’를 탑재한 가정용 로봇 ‘클로이’를 공개하고, 엔비디아 ‘아이작’ 플랫폼을 활용해 가상 환경에서 학습·검증을 진행해 왔다. 업계에서는 LG전자가 기존 클로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엔비디아 기술 적용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고 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와 플랫폼을 공급하지만 자체 제조 기반은 없다. 반면 LG는 가전·전자·디스플레이를 직접 생산하고 부품과 IT서비스까지 아우른다. 엔비디아의 AI 기술을 실제 제품과 생산 현장에 구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조 파트너로 평가받는 이유다.

젠슨 황 CEO는 지난 8일 구광모 회장과 회동 직후 “LG와 협력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로보틱스”라며 “가까운 미래에 공유할 발표가 많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타이어 3社, 中 프리미엄·전기차 시장 공략

OE 공급 등 점유율 경쟁 치열

넥센타이어가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 BYD와 손잡고 중국 공략에 나선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등 한국 타이어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및 전기차 전용 타이어로 고부가가치 전략에 나선 가운데 넥센타이어 합류로 시장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넥센타이어는 BYD의 ‘쉴 6(SEAL 6)’와 ‘돌핀 서프(Dolphin Surf)’ 두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OE)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제품은 고성능 여름용 타이어 ‘엔페라 스포츠’다. 중국 완성차 업체에 대한 첫 OE 공급으로 전기차 타이어 분야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특히 중국 내수 시장은 한국 기업에 합지로 좁히지만 이번 공급은 고수익 제품군에 집중한 프리미엄 전략의 성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넥센타이어 측은 “BYD 두 차종에 OE 공급을 개시한 것은 하나의 타이어로 전기차와 내연기관 등 차종의 구분 없

이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는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입증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중국 자동차 시장 변화에 맞춘 ‘전동화’ 기술력 강화로 현지 시장 점유율을 높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24년 한국타이어는 837만7800개(점유율 8.00%)를 공급하며 전체 4위에 올랐다. 금호타이어 역시 508만800개(점유율 4.85%)를 공급하며 9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24년 중국 시장에 세계 최초 풀라인업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을 출시했으며, 금호타이어는 중국 내 18인치 이상 고인치 타이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한국 타이어 기업들이 프리미엄과 전기차 전용 타이어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며 “한국의 기술력이 해외 브랜드와 비슷하지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중국 기업들의 선호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에너지솔루션 ees 유럽 2026 부스 조감도.

삼성, 인도 프리미엄 주거단지 HVAC 공급

3000여대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 적용 오피스 등 현지 주거시장 본격 공략

삼성전자가 인도 프리미엄 주거단지에 고효율 공조(HVAC) 솔루션을 공급하며 현지 주거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

22일 삼성전자는 인도 부동산 개발업체 센트랄파크와 협력해 인도 구루그람 지역에 조성 중인 주거단지 ‘디 오차드’에 공조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300세대 규모 단지에 3000여 대의 삼성전자 가정용 시스템에 에어컨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다. 내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구루그람은 뉴델리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위성도시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이 진출해 있는 인도 북부의 대표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지로 꼽힌다. 고소득층 주거 수요가 많고 여름철 최고 기온이 45도를 웃돌아 고효율 공조 설비 수요도 높다.

삼성전자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DVM S2’와 ‘무풍 1Way 천장형 카세트’를 적용한다.

DVM S2는 실외기 1대로 최대 64대의 실내기를 연결할 수 있어 대규모 주거단지나 상업시설, 학교 등에 적합하다. 고강도 프레임 적용해 내부 핵심 부품의 구조적 안정성을 기존 대비 최대 210% 향상시켰으며 저진동 설계로 규모 9수준의 강진 환경에서도 작동 신뢰성을 확보했다.

또 실내의 환경 변화에 맞춰 냉방 성능을 높이는 ‘AI 쾌속냉방’, 센서 정보를 기반으로 전력 소비를 약 15% 절감하는 ‘AI 에너지 세이빙’, 냉매 누설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AI 실시간 냉매 누설 감지’ 등 AI 기반 맞춤형 제어 기능을 지원한다.

실내에는 삼성전자의 주거용 공조 솔루션인 ‘무풍 1Way 천장형 카세트’가 설치된다. 직바람 없이 쾌적한 냉방을 제공

하며 높이 135mm의 슬림한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PM 1.0 필터(초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탑재해 초미세먼지를 걸러내고 포집된 유해세균을 99% 살균할 수 있다. 스마트싱스와 연동하면 스마트폰으로 각 방의 온·습도와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전력 사용량 확인과 AI 절약 모드를 통한 에너지 관리도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이번 공급을 계기로 오피스와 쇼핑몰, 호텔 등 상업용 건물 중심의 HVAC 사업을 프리미엄 주거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성택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HVAC 기술 경쟁력과 현지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바탕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주거 시장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LG엔솔, AI DC용 배터리 솔루션 선보

ees 유럽 참가…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

LG에너지솔루션이 유럽 최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ESS) 전시회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배터리 통합 솔루션을 선보인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망 안정화와 비상전원 확보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전력망용 ESS와 무정전 전원장치(UPS)·배터리백업장치(BBU) 제품군을 앞세워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3일부터 25일(현지시간)까지 독일 뮌헨 메세 뮌헨에서 열리는 배터리 및 ESS 전문 전시회 ‘ees 유

럽 2026’에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AI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는 전력 인프라를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AIDC)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선보인다. 전력망용 ESS와 UPS·BBU 등 배터리 솔루션에 더해 유럽 현지 생산 역량과 배터리 규제 대응 체계를 함께 공개하며 시장 경쟁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럽 배터리 규제 대응 역량도 제시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시장 내 키오스크를 통해 배터리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배터리 패스포트’ 대응 현황을 보여준다.

/원관희 기자

한국엔컴퍼니, ‘2050 탄소중립’ 역량 집중

‘그룹사 에너지 교류회’ 개최

한국엔컴퍼니그룹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룹 차원의 ‘원팀’을 가동하며 에너지·탄소관리 역량 결집에 나섰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지난 17일 대전 유성구 한국엔지니어링랩에서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엔컴퍼니,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한온시스템 3사의 에너지 담당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사 에너지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교류회는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와 공급망 전반의 감축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각사의 주요 에너지원 및 온실가스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배출권거래제 대응과 2026년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에너지 절감 및 탄소 저감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이를 그룹 전반에 확산·적용하기 위한 벤치마킹 전략을 모색했다.

한국엔컴퍼니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기업 경쟁력과 공급망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그룹사 간 역량을 결집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창출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SK에너지, 석유제품 공급가격 사전고지

새로운 정책 도입… 유통시장 안정 기여

SK에너지가 주유소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는 새 가격정책을 도입하며 석유제품 유통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SK에너지는 공급가격 사전 고지와 사후정산 폐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가격정책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새 가격정책은 주유소와 대리점 등 유통망에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

할 때 거래조건을 표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주 단위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는 방식이다.

SK에너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공급가격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주유소 판매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SK에너지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도 추진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안정적인 원유 조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원유 수입처 확대와 관련 설비 투자를 통해 현재 약 70% 수준인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을 장기적으로 50%까지 낮추고 중동 외 지역의 대체 원유 확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화 SK에너지 사장은 “SK에너지는 책임 있는 에너지기업으로서 공급가격 결정 구조 개선과 국민 생활 안정 지원,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